

콘크리트미학



역 자 :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
출판사 : 기문당
출판일 : 2005년 8월
정 가 : 12,000원

건설 구조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난 수십년 동안 관련재료, 구조 및 시공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다양해져 가는 구조물의 요구성능을 만족시켜 주고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대형, 장스팬, 특수 구조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학자 및 기술자들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학회지에 기술되었던 전문 분야별 특집기사를 보완하여 콘크리트 재료, 시공 및 구조 분야와 관련된 일련의 「콘크리트 특집도서 시리즈」를 기획하여 제1권 「레미콘 플랜트 설비와 콘크리트 품질」, 제2권 「콘크리트의 재활용」, 제3권 「유동화 콘크리트」, 제4권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특성」, 제5권 「콘크리트 미학」 등의 도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집필내용은 국내·외의 현재 기술현황을 바탕으로 각 기술의 특성과 장·단점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등을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도서는 그간 각 분야별로 학회지 특집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축적된 연구결과 및 국내·외에서 개발된 각종 기술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도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



저 자 :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출판사 : 태림문화사
출판일 : 2005년 8월
정 가 : 22,000원

구조설계의 철학이 허용응력설계에서 극한강도 설계로, 그리고 한계상태로 바뀌어 왔고, 현재는 성능설계로 그 방향을 다시 바꾸는 중에 있다. 기초구조의 설계에 있어서도 요구성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설계의 절차로서 당연한 일이며, 그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철학으로 어떠한 근거에 기초해서 어떠한 검토를 행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설계의 설득력은 증대되고 또한 신뢰도의 향상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 기준에서는 기초구조에서 한계상태를 극한한계상태, 손상한계상태, 사용한계상태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초구조 요소별 한계상태의 소요성능을 설정, 구체적인 검토항목, 그리고 확인방법까지 명시하였다. 각 기초의 설계에서는 침하량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지금까지 기준에 의한 지지력과 침하량으로부터 지내력을 결정하는 설계철학에서 진일보한 것이고, 설계자가 기초 또는 지반의 변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의 성능이 보다 명확하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의 기준에서 없었던 새롭게 추가된 7장의 병용기초가 있고 특히 이종기초의 설계를 기술하고 있다. 이전의 기준에서는 이종기초의 사용을 억제하였지만 실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경사진 또는 복잡한 지층을 갖는 대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억제하기보다는 검토사항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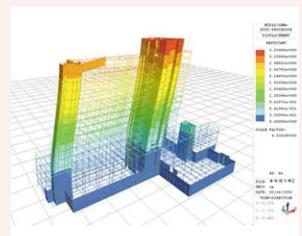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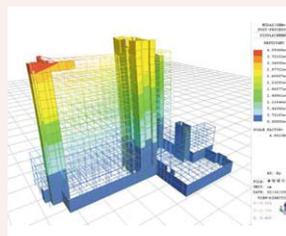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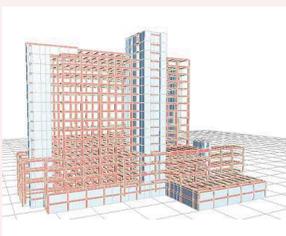
이 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은 앞으로 "건축구조설계기준"의 4장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Cover Story



〈표지사진〉 중앙대학교 법학관

본 구조물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 부지내에 위치한 연면적 28100㎡ 규모의 교육시설로서 지하3층, 지상14층, 높이 63.1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다. 편토압을 받는 경사지에 시공되는 건물 특성상 토압에 의한 횡력에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토목옹벽은 영구양각 처리하여 건물과 분리시켰으나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토목옹벽 하자로 인한 과다변위 발생시 건물이 토압에 의한 횡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일정 이격거리를 두어 BUTRESS를 설치하였으며 부재설계에 적용하였다. 적절한 단면의 부재 설계를 위해 콘크리트 강도는 24, 27MPa 두 종류를 적용하였으며 양방향 연성모멘트 골조로 3D 내진설계를 수행하였다.



건설기술 · 건축문화선진화 정책토론회



지난 1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는 주택도시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원 주최로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진애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 건축문화선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된 본 토론회는

운영태(경희대 토목건축공학과) 교수의 발표와 건설기술 · 건축문화 선진화 방향과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급속한 개발로 경제규모 세계 11위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수려한 자연과 문화적 전통에 바탕을 둔 우리의 고유한 건축문화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되었고, 경제성과 가능성을 강조해 온 건설기술과 제도는 이를 가속화 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환경과 문화의 21세기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그 동안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미루어 왔던 좋은 건축과 좋은 환경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모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개발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제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건설기술을 선진화하고, 건축문화를 고양하는 일은 국민의 자긍심과 사회통합,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세대를 포함한 후 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동력으로서 이미 선진 각국에서도 국가 중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건설기술과 건축문화의 선진화 방향을 논의하는 귀중한,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제5회 국제 주택 심포지엄

Wellbeing and Urban Hous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난달 10일 서울 산업대에서는 제5회 국제 주택 심포지엄이 열렸다. 서울산업대 주택대학원이 설립된 2000년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는 본 심포지엄은 도시 주거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친환경적 도시주거생활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정선(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원장과 박헌주(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본 행사는 Session I과 Session II로 나뉘어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세계환경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정립한지 18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미 1992년 리오회의 이후지만 아직도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전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적 형평성의 미흡, 지역간, 계층간, 이념간, 세대간 갈등의 고착화로 인해 아직도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걸 맞는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모색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며 이날 심포지엄은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조 연설로는 Adnrew Seidel(미국 Texas AM 대학)교수가 '지식, 지속성, 주거, 예술: 건축계의 사회적 분석'에 관해 발표하였으며, 이외에도 연사로 Dong Wei(중국 동남대학) 교수, 방병규(서울산업대) 교수, Hiroto Takaguchi(일본 Kyushu대학) 교수, 정종대(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Qinghao Liu & Feng Chen(중국 난징시 도시국)이 나섰다.

문의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원정보(등록, 변경) 안내

한 글		한 자	영 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화번호	이동전화	
	주 소 (-)		
직 장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		
E - Mail			
20 년 월 일			

- ※ 작성하신 후에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해 주십시오.
 - ※ 위의 양식은 홈페이지 (www.ksea.or.kr) 「알림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Fax : (02)566-4729 / E-Mail : ksea@ksea.or.kr